

한국진공학회의 역사 - 1

주정훈

우리나라에 진공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때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광무10년(1906)에 국민교육회가 발간한 “신찬 소물리학”이라는 책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배기통은 공기를 배제하는 器(기)니라’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한양대 이수용 교수). 진공을 응용한 기구인 전구가 수입되어서 사용이 되었고 진공보온병, 진공청소기가 보급되면서 일반에게 전파되었다. 일반 배기용 진공 펌프의 사용은 오래되었으나 학계와 연구계에서의 본격적인 사용은 반도체 메모리 제조산업이 1980년대에 국내에서 발달하게 되면서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진공 장비들이 선을 보이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1991년 9월에 모여서 한국진공학회의 설립을 주도하

고 20여 년간 꾸준한 성장을 계속하여 2014년 현재 진공기술, 표면 및 계면 과학, 플라즈마 및 디스플레이, 반도체 및 박막, 나노 및 바이오인터페이스, 에너지 분야에 총 4,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10대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대개의 대규모 학회들이 대학의 학과명을 가진 곳이어서 사제 관계, 선후배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위계질서로 조금 경직된 분위



2012년에 새로 구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사무실 개소식

기인데 반하여 우리 진공학회는 태생부터 융합적이어서 학술 분과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물리, 화학, 재료 등의 다양성이 학회의 운영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 뉴스레터를 통해서 학회의 역사를 학회의 운영, 학술 행사, 국제 행사, 진공 산업체와의 협력, 회원, 학술지 등 하나씩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로 한다.

〈저자 약력〉



주정훈 교수는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KIST, GoldStar Electron 반도체 연구소를 거쳐 1992년부터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 2005-2006 미국 New York의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객원교수, 2012-2013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현재 <플라즈마 융합 공학 대학원> 학과장, 한국진공학회 정회원(1993년~)이며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jhjoo@kunsan.ac.kr)